# 함평군 추사작품 위작 논란 소송 일단락?…불씨는 여전

## 35억 들여 30점 구매·50점 기증 받아…고미술협회서 32점 위작 판정
## 기증자 소송…광주고법 "함평군 기증작품 돌려주되 손배 책임 없다"
## 군, 30점 되사가라는 환매 청구 방안 검토에 추가 소송전 가능성도

추사 김정희 박물관 건립을 위해 함평군이 기증·매매 받은 작품의 위작 논란과 관련한 소송이 3년 6개월만에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법원이 1심 판결과 같이 원고가 기증한 작품은 되돌려 받되, 함평군에 청구한 10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함평군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35억을 들여 원고로부터 구매한 30점의 추사 작품을 되사가라는 환매 청구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추가 소송전이라는 '불씨'는 남아 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안백순 이헌 서예관장이 함평군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반환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함평군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안씨가 기증한 39점의 추사 작품을 안씨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했다. 함평군은 이미 1심 판결 이후 해당 작품 39점(글씨 24점, 현판 4점, 그림 1점, 편지 8점, 신위 2점 등)을 안씨에게 반환했고 현재 41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서 고미술품점을 운영하는 안씨는 지난 2014년 고향인 함평 군립미술관에서 소장중이던 추사 작품 71점을 전시했다.

안씨는 이듬해인 2015년 함평군이 추사박물관 조성을 위해 여러차례 작품 기증을 요청하자 일부 작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기증을 하기로 했다.

함평군과 안씨는 2015년 9월 외부에서 6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해 안씨가 기증·매매 하기로 한 69점의 작품을 감정했고, 모두 진품이라고 평가가 나왔다.

양측은 2016년 다른 추사작품 11점을 더해 총 80점에 대해 매매계약 및 기증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함평군은 의회의 반발에도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씨로부터 추사 작품 30점을 구입하고 50점을 기증받았다.

함평군은 이후 안씨에게 통보하지 않은 채 2018년 사단법인 한국고미술협회장에게 감정을 맡겼고 이중 32점이 위작이라는 판정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안씨는 감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한국고미술협회는 이를 받아들여 재감정하기로 했으나 함평군이 재감정을 수용하지 않아 실제 재감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함평군은 해당 작품들을 진품이라고 판정한 외부 심의위원 6명과 담당 공무원 2명 등을 2019년 수사 의뢰했으나 수사기관은 안씨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사 종결했다.

결국 안씨는 함평군에게 작품을 반환할 것과 함께 위작논란을 언론에 알리는 불법행위로 자신의 명예와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려 손해를 입혔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2심 재판부는 모두 "안씨의 기증은 부담부 증여로 추사 작품 50점을 기증하고 추사박물관을 건립해 안씨를 명예 관장으로 위촉하기로 한 협약 자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기증된 작품은 안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함평군이 감정을 한 것은 재량행위이고, 감정결과를 외부에 알린 증거도 없다"면서 "함평군의 행위가 안씨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위작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함평군의 고소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가품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을 했지만, 증거를 제출한 바가 없어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함평군은 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 만족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간 함평 군립미술관 수장고에 보관중이던 작품을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송 결과를 토대로 35억원을 들여 구매한 30점에 대해서는 안씨에게 다시 반환하고 매매금액을 돌려달라는 협의를 진행할 것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함평군은 인수일 이후 언제든지 작품의 진위를 검수할 수 있으며, 위작으로 판명될 경우 안씨는 작품가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양한 방안을 고려중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나주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 수사하라"

## 비대위 "주거 가능한 것 처럼 속였다"…시행사·분양대행사 수사 촉구

나주 지식산업센터 사기분양을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비상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분양자들을 속인 시행사와 분양대행사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건설사 등이 나주토담휴로스센트럴타워(지식산업센터) 분양 당시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입주를 홍보했다"면서 "모델하우스에도 주거가 가능한 것처럼 침대나 화장실이 마련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가 나주혁신도시에 있어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한국에너지공대 학생들의 기숙사로 임대해주면 월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홍보까지 했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한 피해자들이 제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고 중도금을 갚느라 파산까지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를 허가한 나주시를 상대로도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파악된 피해자만 100여명으로 피해액은 중도금 포함 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에 사기혐의로 건설사 대표를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 등 관계자 2명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하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는 22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걷기 행사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사는 특별법 제정의 진전도에 따라 참사 1주기인 오는 10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지속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국가지원금 2억 부정 수령 업체·대학 적발

## 해남경찰, 4명 수사 중

경찰이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제도를 악용해 국가 지원금 2억여원을 부정 수령한 업체와 대학을 적발하고 수사에 나섰다.

해남경찰은 지난달부터 해남군 소재 조선업체 A사 관계자와 목포시의 B대학 관계자 등 4명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2022년 2년 동안 고용노동부에 허위로 작성한 일학습병행 교육생 목록을 제출하고 2억여원의 훈련지원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일학습병행 제도는 기업이 대학 등과 연계해 구직 청년을 근로자로 채용하고 현장 내·외에서 교육 훈련을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씩의 훈련지원금을 기업에게 제공한다.

경찰은 지난 3월께 해당 내용을 인터넷으로 제보받아 수사를 이어가던 중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입건,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A사와 B대학이 미리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추가 가담자 및 여죄를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B대학을 통해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목포, 영암, 해남 등 타 지역 30여개 업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폐쇄·해고 통보에…근로자들 생존권 보장 촉구

고려시멘트 장성공장 근로자들이 최근 공장 폐쇄 결정과 함께 전원 해고를 통보받았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려시멘트 노동조합은 22일 광주시 북구 오룡동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시멘트는 다음달 11일 자로 해고 통보를 받은 장성공장 근로자 77명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방침을 처음 통보했을 때는 대상자가 65명이었지만 이후 77명 전원으로 번복했다"며 "사측이 제시한 9개월 급여분의 희망퇴직 위로금 또한 사회통념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고려시멘트가 지난 2019년 2월 장성군과 장성공장 부지 개발모델 구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때, 개발계획을 확정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10년간 근로자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고려시멘트는 그 때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시멘트는 당초 다음 달 11일 장성공장을 폐쇄할 예정이었으나, 이달 13일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돌연 장성공장을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사측은 노조 파업과 경영악화 등을 조기폐쇄 사유로 밝혔다.

장성군 또한 조기 폐쇄 결정이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사항이라며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장성공장 부지 개발 논의는 고려시멘트와 장성군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 연구용역을 통해 주거·상업·관광휴양 복합형으로 한다는 기본 방향만 나온 상황으로 전해졌다.

고려시멘트는 37만 2624㎡에 달하는 부지와 광업권 등 장성공장의 자산가치를 1500억원대로 평가하고 있다. 장성공장 폐쇄 이후 부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사유재산인 만큼 그 주체는 고려시멘트 또는 자산 인수자가 된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 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1%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1일이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9%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1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